

민주주의 모범사례 남긴 국민의 힘

전문가 칼럼

임성호
정치외교학 교수

국민의 힘으로 무능·부덕·범범의 인물을 대통령 직에서 밀어낸 이번 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쾌거이다.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에 이어 국민이 집합적으로 뭉쳐 중대한 민주적 변화를 얻어낸 대사건이다. '민주'란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주인'(principal)이고 대통령, 의원 등 정치인은 '대리인'(agent)이라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당연한 이치가 세계 곳곳에서 망각 또는 무시되거나 이번에 우리 국민은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탄핵의결은 국회가,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했지만 탄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끈 근원적 원동력은 국민의 행동과 의식이다. 비정상·비상식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과 대통령 행태에 공분을 느낀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거리에 나와 분명한 의사 표시를 했고 각종 사적 공간에서 비판적 담론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 여론을 형성했다. 아직도 왕조시대의 신민(臣民)적 가치관을 고수하거나 유사종교와 같은 맹신적 미동에 빠져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구제불능의 최고위직 대리인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광범한 공감대를 이름으로써 거대한 역사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적극적 주인의식의 통렬한 발현이라 하겠다.

특히 국민이 주인임을 매우 평화로운 방법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사인의 정신적 조종을 받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를 외국인에게 하기가 처음엔 부끄러웠다. 우리나라의 얼굴 전체에 멱칠을 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데 이 수치(羞恥)를 국민이 적극적 주인의식을 발휘함으로써 자부심으로 바꿔주었다. 수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고 이튿날 11일 광화문에는 제 20차이자 마지막 촛불집회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리했다 (사진=기호웅 기자)

백만 명이 수십 차례 모여 매번 엄청 난 민주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아무 불상사 없이, 비폭력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예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쾌거는 앞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교재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수많은 학자·언론인·정치인이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축하 분위기만 즐길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모범을 보였다는 생각은 자칫하면 지나친 낙관론으로 공허감을 남기거나 결국 배신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정치현실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치열한 반성과 진정한 변화를 향한 노력이 없다면, 주인인 국민에 의해 발동 걸린 체제 변화가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의 무능·무지·불의로 인해 궁극엔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 오늘 날 정치권의 현실은 국민이 애써 만든 호기를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암울해 보인다.

무엇보다, 경직된 정파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현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반

대세력을 겹박하며 불통의 통치를 자행했던 것은 개방적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폐거리 집단주의와 양극적 대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과 견디는 비판의식이 존재했으나 경직된 집단주의로 인해 자유롭게 분출되기 어려웠다. 이분법적 집단 대결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립적·중도적 견제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고, 무조건 승복과 무조건 반대 중 택일해야 했다. 만약 의원들이 각기 자율성을 갖고 양심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었다면 여당 내에서 아래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이고 야당의 비판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매도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도 여당으로선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야당이 어떠한 비판을 해도 양극적 대결의 일환으로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독선의 길을 거리낌 없이 걷고 불통의 자세를 고집스레 취했던 것이다.

정파는 어느 나라에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도 문제

로서 그 집단기율의 경직성이 과도하다는 데에 우리 정치현실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 탄핵으로써 변화의 초석을 깔 수 있었던 것은 국민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합해진 덕이지 정치권의 정파적 조직과 동원 때문이 아니다. 정치권이 계속 정파 집단주의에 지배된다면 대리인 간의 경쟁과 대결이 무대를 이끌고 정작 주인인 국민은 무대 밖으로 밀려 무시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탄핵 이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비슷한 비극을 반복할 수 있다.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끊임 없이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하고 설득의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득이 항상 성공할 수 없기에 국정 운영은 고달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누가 주인인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잊는 순간 탄핵 성공이라는 민주주의 모범사례가 또 하나의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다. 대리인끼리 집단주의 대결을 펼치며 주인을 무시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던 과거가 더 이상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정치인들이 절감해야 할 것이다.

참여마당

홍익수

(환경조경디자인학 2012)



삶, 여행, 인식 그리고 다시 삶

방학은 무엇을 위해 있을까? 알비, 인턴, 공부 및 스페 쌓기 등 할 일은 많지만 1차적인 목적은 휴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 제대 후 복학을 하니 내일모래 20대 후반이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주시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이젠 달려 나가야 할 때지만, 방학을 했으니 어디라도 놀러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방학, 피로도 풀 겸 가족끼리 짧은 온천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간 곳은 노천온천과 수영장이 함께 있는 리조트였다. 정신없이 온천을 즐기다 어느 순간 어색한 점을 발견했다.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 또는 대학생 이상의 어른들 뿐이라는 걸. 분명 초·중·고등학교도 방학일 텐데 다들 어디로 갔을까. 설 연휴 직전이었던 탓에 한산했다고는 해도 '청소년기'의 아이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건 이상하다.

삶에 필요한 휴식, 삶의 여정에 짐이 되기도 하더라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라 가족끼리 짧은 여행도 못 오는 것인지는 뻔하다. 학원, 공부, 시험…, 방학 때 편히 쉬지도 못하고 학원에 들어박혀 있는 고통은 겪어봐서 안다. 10대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경희대 학우들은 알겠지만 며칠 쉬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휴식은 꾸준한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런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치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맘 놓고 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단 하나의 시험을 위해 삶을 바치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시기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쯤이면 어디든 취직은 했을 테고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며 어린 조카들에게 세뱃돈도 주면서 살고 있겠지.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가?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도 그것은 혼자만의 문제라는 점에서 10대 때 하던 고민과 별 차이가 없다. 몇 년 후 30대가 되면 나도, 우리도 어른이다. 후배나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책임에서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현재와 같은 정치적 사태가 재발한다면 무슨 낯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여행에서 숨 좀 들리려 했더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가 또 늘어버리고 말았다. 나이를 먹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 무게를 새삼 체감했다. 그래도 어찌랴. 여행에 행가는 짐들은 부담스럽지만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필요한 물건들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어리광을 부려도 봐주길 바란다. 난 아직 학생이니까.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①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